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7.(월) 10:30 < 8.7.(월) 석간 > 배포 2023. 8. 4.(금)

전력수요 절정(피크) 대비 준비상황 최종 점검

- 이창양 장관, 수도권 전력공급 담당하는 서울복합발전소 현장점검 -

- 오늘과 내일 오후, 올여름 전력수요 최대치 기록 예상 -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 주는 전력수요가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최신 기상청 예보를 반영해 예측해보면 오늘과 내일 오후에 전력수요가 92.9GW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절정(피크)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여름철 절정(피크)수요 실적 : '22년 93GW, '21년 91.1GW

전력 공급능력은 104GW 확보되었다. 지난 7월 가동이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0.95GW)가 지난 4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어제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전력수요 절정(피크) 주간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전력수요 절정(피크) 시 92.9GW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을 전망이다.

* 경보 기준 : 예비력 4.5GW 관심 → 3.5GW 주의 → 2.5GW 경계 → 1.5GW 심각

전력 당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이번 주 전력수요 절정(피크)에 대비해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오후에 전력수요 절정(피크)이 예상되는 오늘 아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핵심 발전설비인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전력수요 절정(피크) 대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설비점검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발전소 운영을 통제하는 전기실, 가스터빈이 가동 중인 지하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살펴보며 준비상황을 자세히 살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수요증가에 대비해 원전,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하였으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전력수요 절정(피크) 시간대 태양광발전 변동성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며 수급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에 "전력 설비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여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 폭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등 작업장 안전관리도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면서 이번 주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일부 매장의 개문냉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서울발전본부 현장 행보 개요**

❖ 당일 오후 하계 전력피크가 전망됨에따라 핵심 전력시설을 방문, **전력설비 관리 현황 점검 및 현장직원 격려**

□ 행사 개요

○ 일 시 : ’23. 8. 7(월) 10:30~11:20 (50분)

○ 장 소 :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마포구 토정로 56)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중부발전 임양수 본부장,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비대면)

*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본사 재난대책실에서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 현장대응

□ 세부 계획

※ 장관님 모두발언 및 현장시찰 공개

일 시	내 용	비 고
10:30 ~ 10:35 (5′)	도착 및 이동	(8층 대회의실)
10:35 ~ 10:40 (5′)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0:40 ~ 10:50 (10′)	이번주 전력수급전망 브리핑	전력거래소 이사장 (영상 연결)
10:50 ~ 11:00 (10′)	발전소 전력피크 준비현황 및 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계획 발표	임양수 본부장
11:00 ~ 11:05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11:05 ~ 11:20 (15′)	전기실 및 지하발전소 시찰	(5층 전기실 → 지하 발전소)